

# 오름세 이어가는 국제유가… 정유업계, 올해 실적반등 기대

정유4社 지난해 영업손실 5.1조 달해  
WTI, 13개월만에 배럴당 60달러↑  
정제마진·코로나 백신 등 관건

정유업계가 지난해 적자만 5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업황을 겪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국내 정유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로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다른 정유사들도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내긴 마찬가지다. 에쓰오일은 1조 877억원을 기록했으며 GS칼텍스는 9192억원, 현대오일뱅크는 5933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주요 정유 4사의 영업손실만 도합 5조1000억원에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달하는 것이다.

올해는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올해는 정유업계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

(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3월 인도분은 배럴당 1.09% 오른 60.12달러에 마감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속 하락세를 보이던 WTI가 6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해 1월 이후 약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물도 63.30달러로 1.46% 상승했다. 미국 전역에 몰아친 한파와 텍사스주의 전력 부족 사태가 유가를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이 같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정유사들도 일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유사는 통상 원유를 사들인 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2~3개월 후 판매하는데, 유가가 상승하면 저렴하게 사놓은 원유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조한 성적을 지속하고 있는 정제마진이다. 정제마진은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정유사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배럴당 4~5 달러를 손익분기점(BEP)으로 본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1달러대를 유지 중이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

은 이달 둘째 주 1.7달러를 기록했다. 정유사가 공장을 가동할 수록 외려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정유업계가 크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의 보급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 분석이다. 올 상반기부터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석유 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제마진도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작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제유가(WTI 기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했다”라며 “2월 원유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320 만b/d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월 평균 6만b/d 초과 공급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개선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스마트 주문·결제 솔루션 ‘삼성 키오스크’ 첫선

### 삼성전자 고성능 통합칩 탑재 터치스크린 99.99% 향균 코팅

삼성전자가 스마트 주문 솔루션을 국내에 먼저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삼성 키오스크’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글로벌 출시에 앞서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것.

삼성키오스크는 상품 선택과 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온라인 솔루션이다. 식당과 카페,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고성능 통합칩(SoC)를 탑재해 별도 PC 없이 콘텐츠 관리와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리더기와 영수증 프린터, QR과 바코드 스캐너 등 주변기기와 와이파이, NFC 등 기능을 탑재했다.

디자인도 고급스럽다. 그레이 화이트 색상에 24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테이블과 스탠드, 벽걸이 등 3종으로 출시해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

위생도 잡았다. 터치 스크린 표면에 99.99% 항균 효과를 내는 특수 코팅을 적용했다. 미국 UL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인체 독성 평가 시험도 통과했다. 쉽게 변색되지 않고 90% 이상 높은 투과율로 화질도 보장한다.

운영체제는 타이젠이다. 리눅스 기반으로 호환성이 높다. HTML5, 자바스크립트, CSS 등 웹 표준 기술도 지원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접근성도 높였다.

보안은 삼성 녹스가 지켜준다. 해킹 등 외부 위협 요소 뿐 아니라 하드웨어와 결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등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매직 인포 원격 지원 기능으로 전국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며, 문제 발생 시 원격 제어로 즉각 해결과 필요 조치도 할 수 있게 했다.

/김수중 기자 juk@

## 대한항공,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 수송

### 유니세프와 의료약품 수송 MOU

대한항공이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 19 백신을 수송하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 유니세프와 코로나 19 백신 및 의료물품의 글로벌 수송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는 1946년 세계 어린이를 돋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구호단체로 세계 최대의 의약품 보급 기관 역할도 맡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유니세프는 코로나 19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의 전 세계 코로나 19 백신 보급 업무를 담당하

고 있으며 상반기 중 145개국 대상으로 백신의 균등 공급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 연간 20억 개 이상의 백신을 비롯한 각종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조달 및 배급한 바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코로나 19 백신 물량을 전 세계에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역량, 전문성을 갖춘 항공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유니세프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물 공급능력, 전문적인 의약품

수송능력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한 항공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 항공사를 코로나 19 백신 전담 수송 항공사로 선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

19 백신 전담 택스터포스 팀을 운영하며 완벽한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제조 사별로 수송 조건이 -60°C 이하의 극저온, -20°C 이하의 냉동, 2~8°C의 냉장 유지 등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온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드체인 강화 및 시설 장비 보강 등에 중점을 둘렀다.

또한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참관 하에 진행된 코로나 백신 수송 합동 모의 훈련을 포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유니세프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 19 백신 보급에 글로벌 항공사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향후 인도주의적 의약품 및 구호물자 수송에도 적극 참여 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 임상시험 통해 피부 치밀도 개선 확인

LG 프라엘 더마 LED 네케어가 의료 기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와 글로벌의학연구센터 연구진과 ‘더마 LED 네케어’의 목 부위 사용 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마 LED 네케어’는 목 부위 피부 관리를 위한 헤어 뷰티기기다. 나쁜 자세나 습관 등으로부터 목 부위 피부를 사전에 관리하거나, 목 부위 탄력이 떨어져 관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제품이다.

이번 시험은 20~60세의 갑상선 관련 과거력이 없는 성인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LG 프라엘 더마 LED 네케어(모델명: SWL1)’를 하루 한 번 9분씩 4개 월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을 준수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목 부위 피부 변화와 사용을 끝낸 후 2개월간 피부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피부 결 및 수분 20% 이상, 피부 치밀도 15% 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증에도 중점을 뒀다. 제품 사용 전과 4개월 사용, 사용 종료 2개월 후에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비교해 갑상선 기능과 조직, 혈류에 영향이 없음을 증명했다.

/김재웅 기자



/LG전자